

경북 ‘사이소’ 상반기 매출 역대 최고 플랫폼 입증

상반기 매출 249억 원·회원 32만 명 돌파

경상북도 농특산물 쇼핑몰 ‘사이소’가 2026년 상반기 매출 249억 원을 기록하며, 자체 최고 기록을 또 한 번 경신했다. 2007년 매출 2억 원의 작은 온라인직거래 장터로 출발한 사이소는 불과 20년 만에 연 500억 원을 훌쩍 뛰어넘는 대한민국 농특산물 전문 플랫폼으로 성장했다. 올해 상반기 매출은 전년 동기(230억 원)보다 8.3% 증가했으며, 회원 수도 32만 명을 돌파했다. 현재의 성장세를 유지할 경우 연간 목표인 570억 원 달성도 기대된다.

이러한 성장은 단순한 판매 중심의 운영을 넘어, 소비자가 찾고 머무는 ‘체류형 플랫폼’으

로의 변화를 본격화한 성과로 분석된다. 모바일앱 고도화 및 연계 채널 확대, 직관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UI) 개선, 간편결제 도입, 알뜰쿠폰과 특가 행사 등 소비자 편의 중심의 서비스 강화가 성장의 배경으로 분석된다.

주문물리수 1위, 너야? 상반기 기 최대 주문제품, ‘문경 오미자 닭갈비’

상반기 단일 제품 최대 주문 1위는 문경 오미자 닭갈비로 7,205건을 기록했다. 다음으로 안동 백진주쌀(4,821건), 경주 이사금쌀(3,910건), 예천 우렁이 쌀(3,019건), 안동사과(1,763건)

등이 뒤를 이었으며, 상위를 차지한 품목은 고정 고객의 재구매와 품질 만족도가 함께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사이소와 함께 성장하다! ‘소규모 농가’ 눈부신 약진

이번 상반기에는 소규모 농가와 지역 마을 단위 생산자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사이소를 통해 처음으로 온라인 판매를 시작한 소규모 생산자들이 우수한 품질과 높은 만족도를 바탕으로 고정 고객을 확보하며 매출이 크게 증가했다. 대표적으로 ‘성주참외한아름’은 직접생산·당일수확·당일출하를 앞세워 상반기 매출이 전

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하며 성장세를 이끌었다. 이는 소비자들이 생산자의 진정성과 품질을 갖춘 지역 농가의 제품을 적극적으로 선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3050세대가 이끈 성장… 모바일 이용도 증가

연령대별 구매 비중을 분석한 결과, 40대가 44.9%로 가장 높았고, 30대(23.2%)와 50대(19.1%)가 그 뒤를 이어, 3050세대가 사이소 성장의 핵심 고객층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시스템 개편 이후 모바일 앱 구매가 8.7% 증가한 것은 UI 개선과 간편결제 도입으로 이용 편의성이 높아진 결과로 분석된다. 사이소는 ‘유통직접배송’서비스를 바탕으로 일상 속 스마트폰 장보기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역대 매출 업체 39개소 배출, 탄탄한 농가 기반 확인

올해 상반기 사이소에서 매출 1억 원 이상을 올린 농가 및 업체는 총 39곳으로 집계됐다. 과일·채소류(19곳)가 가장 많았으며, 가공식품(7곳), 축산물(6곳), 곡류(5곳), 수산물(2곳) 순으로 고르게 분포했다. 이는 특정 품목에 편중되지 않고 경북 농특산물 전반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김경수 기자
kyungsuk@nonguplimes.com

“청도 복숭아 전성시대” 농심 소득 증대 총력

현장 소통 통해 기반 강화 박차

청도군이 본격적인 복숭아 출하 성수기를 맞아 ‘청도 복숭아 전성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가운데, 박권현 군수가 직접 현장을 찾아 농민들의 팍방울을 격려하고 소득 증대를 위한 행보에 나섰다. 박권현 군수는 16일 청도농협 및 새청도농협 농산물 공판장을 잇따라 방문해 복숭아 출하 현황을 점검하고, 이른 아침부터 수확에 매진한 농업인 및 관계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전년 대비 비약적으로 상승한 복숭아 출하량에 맞춰 원활한 유통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7월 중순 기준 공판장 누계 출하량은 75만 3천여 박스로, 지난해(57만 3천여 박스)보다 약 31% 급증하며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박권현 군수는 공판장 시설과 출하 준비 상황을 세심하게 살피는 한편, 현장에서 농민들을 직접 만나 노고에 깊은 감사를 전했다. 이어진 관계자 간담회에서는 농산물 포장제 지원과 안정적인 판로 확보 등 농가 소득과 직결되는 실질적인 유통 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었다.



▲복숭아(픽사베이)

한명덕 기자
press582@nonguplimes.com

철원군 농업기술센터, ‘농가 소득원 창출’

2026년도 철원 농산물 가공 교육 수강생 모집

철원군 농업기술센터는 철원 농산물을 활용한 경쟁력 있는 가공품 개발로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고, 지속적인 농가 소득원을 창출시키기 위해 오는 7월 말부터 ‘철원 농산물 가공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농산물가공기술센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균일화·표준화된 가공제품 생산을 통한 농가 경쟁력 강화 및 가공창업 지원을 위해 기획됐다.

교육은 한국식품정보원에 위

탁하여 진행되며, △농산물을 이용한 농축가공제품 △농축액기스 가공실습 △농축제품 가공실습 등 철원 특산물을 원료로 삼아 농축기술의 이해부터 장비 활용 실습까지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가공창업 교육은 철원군 농업기술센터 분석지원센터(농산물 가공교육장)에서 오는 7월 31일부터 8월 28일까지 매주 금요일마다 총 5회에 걸쳐 진행되며, 교육 시간은 13:30부터 17:30까지

이다. 신청 자격은 철원군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자) 중 기초교육 이수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접수 기간은 7월 6일 ~ 7월 20일까지 선착순 15명 모집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관내 농업인은 농업유통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최순범 농업유통과장은 “이번 가공창업 교육은 지역 농산물의 가공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농산물 가공 창업과 고부가가치 창출에 관심 있는 농업 경영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고령군, 농업경영인 지도자 교육 개최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 고령군연합회는 지난 7월 13일부터 14일까지 1박 2일간 임원 및 회원 28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농업경영인 지도자 교육’을 개최했다. 금번 교육은 부산광역시에서 진행됐으며, 마늘탈피가공 전문업체, 스마트팜 등을 방문하여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고, 농업경영인 단체의 단합 및 자긍심과 사명감을 고취시키고자 추진됐다. 마늘탈피가공전문업체와 스마트팜 등 현장을 방문하여 마늘 주산지의 농업인으로서 가공업체

방문을 통하여 농산물 가공산업에 파악하고 변화되는 농촌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이야기했다.

이덕봉 회장은 “이번 지도자 교육을 통해 읍·면 일선 조직 강화와 더불어 한농연 단체의 금지와 화합을 도모하며, 지역 농업을 이끄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전했다.

고령군(군수 이남철)은 “이번 교육을 통해 경험한 선진 사례들이 정책 반영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안전아 기자
midal0210@naver.com

장성군, 벼 병해충 공동방제 추진

장성군이 7월 20일부터 벼 병해충 공동방제를 추진한다. 군은 총사업비 7억 6600만 원을 투입해 지역 내 벼 재배 농업인 4179농가를 대상으로 공동방제를 실시한다. 방제 규모는 일면 3400ha(헥타르), 친환경벼 300ha다.

작업은 읍면 공동방제단을 중심으로 추진되며, 방역방제기와 농업용 드론 등을 활용한다. 일반벼는 1ha 당 19만 원을 기준으로 약제비 10만 원과 방제비 9만 원의 50%를 보조한다. 친환경벼는 1ha 당 45만 원을 기준으로 방제비 9만 원씩 5회 분을 전액 지원하며,

약제는 별도 지원된다. 군은 일반약제가 바람에 날려 친환경농가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사전 안내와 현장 관리, 점검 및 지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장성군이 이처럼 벼 병해충 방제에 행정력을 집중하는 이유는 고온다습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병해충 발생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벼 병해충은 한 번 발생하고 나면 이후 대응에 한계가 있어 농가 피해가 막심하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공동방제를 통해 농가의 작업 부담을 줄이고, 고품질 쌀 생산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경남도, 가축 폭염·호우피해 대응 체계 가동

경상남도는 최근 지속되는 폭염과 집중호우 등 여름철 이상기후에 대비해 축산재해 비상관리체계를 가동하고, 16일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세미나실에서 시군과 축산 관련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축산재해 대응 협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시군 축산부

서와 농협경남본부 축산사업단, 축종별 생산자단체(한우·젓소·양돈·산란계·육계·양봉·오리) 등 관계기관이 참석해 폭염과 집중호우로 인한 가축 폐사와 생산성 저하 등 여름철 축산재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최근 기상 상황과 가축 피해 사례를 공유하고,

시군별 여름철 재해 대응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박동서 경남도 축산과장은 “이상기후가 일상화되면서 여름철 축산재해 위험도 커지고 있다”며 “철저한 사전 예방과 신속한 현장 대응으로 축산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축산 경영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영란 기자
yunglan528@hanmail.net

10년을 지나,

100년의

지속가능성을

바라보다.

축산환경관리원

Livestock Environmental Management Institute

축산환경관리원은 창립 10주년을 맞아

지난 10년간의 경험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100년을 준비하여 더욱 도약하겠습니다.

친환경

안심축산업

실현

가축분뇨

처리

다각화

축산환경

전문가 인력

양성·교육

데이터 기반

축산환경

개선